

# 도내 방과후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

### 전북교육청, 총 4차례 설명회 갖고 2021 주요정책 방향·사업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 전북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과후지원센터 담당자, 2021년 개인위탁과 업체위탁 운영학교의 초·중·특수학교장 및 행정실장 위탁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2021 방과후학교 주요 개정 내용 안내 ▲2021 방과후학교 주

요정책 방향 및 사업 안내 등이다.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 정책 방향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활동 실천사례와 개선방안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먼저 10일에는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방과후지원센터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에는 2021년 개인위탁운영학교와 업체위탁운영학교

의 초·중·특수학교장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개최한다.

또 24일에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위탁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2021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김영병 확산 등 국가재난(비상) 상황시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천재지변, 국가재난(김영병 확산) 등으로 운영 중단시 강사 계약 기간 변

경으로 강사 권익 보장 ▲위탁업체 선정시 학교 업무 경감 방안 제시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시 위원회 자격 명료화 ▲강사료 산정 기준 명확화로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및 위탁업체 의견 반영 등이 있다.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사는 "2021년도 방과후학교 주요개정과 주요정책방향을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전북 컨소시엄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이 10일 전북대에서 '농·생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생명 분야 협약

#### 전문 인력양성 협조체계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전북 컨소시엄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이 10일 전북대에서 '농·생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전북 컨소시엄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생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농·생명 관련 교과과목과 비교과 과목을 개설 운영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를 위한 강의 지원, 현장실습 및 기업탐방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은 전북대가 선도대학이며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가 협력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을 위해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때 따라 전북대는 농·생명 관련 교과과목과 비교과 과목을 개설 운영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를 위한 강의 지원, 현장실습 및 기업탐방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은 전북대가 선도대학이며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가 협력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을 위해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책사업이다.

###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주관대학 '전북대-전주비전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총괄책임자 박준호 교수)에 선정돼 전북권역 비대면 원격교육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국가 차원의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 체계 전환을 대비한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전북대와 전주비전대가 주관대학이 돼 전북지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광대와 전주대, 우석대, 예수대, 한일장신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등 7개 대학이 협력대학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로부터 1차 년도에 11억4천만 원을 지원받아 권역 내 공동 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이후 2025년까지 연차별 운영을 통해 전북권역 대학들이 함께 온라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만들고, 나아가 타 권역센터와도 연계해 공동·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 활용 강의 녹화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원격강의 콘텐츠 개발, 대학 원격수업 혁신지원, 원격교육 성과 관리·컨설팅·연수·우수사례 공유·협업체 운영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박준호 교수는 "이번 사업 선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북지역 대학의 온라인 및 원격수업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재영)은 지난 10일 오후 산학협력단 이노카페에서 산학 공동연구개발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이알콘크리트(주)(사장 문성제), 에이알산업(주)(사장 김혜민)과 협약식을 가졌다.

### 전북대-에이알콘크리트-에이알산업 '맞손'

#### 산학공동 연구개발·우수 전문인력 양성 등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재영)이 산학 공동연구개발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이알콘크리트(주)(사장 문성제), 에이알산업(주)(사장 김혜민)과 손을 잡았다.

이에 따르면 10일 오후 산학협력단 이노카페에서 조재영 단장과 주요 보직자들, 그리고 에이알콘크리트(주) 문성제 사장, 에이알산업(주) 김혜민 사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에이알콘크리트(주)는 장수에 설립돼 22년을 지역과 함께 이어온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생산 업체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또한 에이알산업(주)은 지역 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처리 및 다양한 품종의 순환 골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공동 연구개발 및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뿐 아니라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설 자재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업체를 구축, 공동 연구 그룹 운영을 통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 인턴십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문성제 사장은 "전북대의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건설자재 등 친환경 시대 도래에 따른 생산공정 시스템 개발과 기술인력,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산학 공동기술 개발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학기 대면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옥정문과 구정문, 박물관 사대부고 등 대학 출입문과 대학로 입원에서 코로나 생활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의미를 담아 학생과 시민들에게 생활방역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희철 학생처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게

음식점, 카페 등에서의 생활방역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학생과 시민 등에게 나눠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생활방역 수칙과 교내의 방역 저해 사항 사전 차단 및 예방 조치, 그리고 이동 자제 및 유증상시 조치 방법 등도 안내했다.

유희철 학생처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2학기 대면수업을 대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생활방역 수칙이라는 기본에만 충실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공포와 어려움 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고창교육지원청, 소그룹 자율연수... 조직역량 강화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은 최근 지방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5인 이내 소인수 그룹별 자율주제를 설정, 1박2일 동안 '소그룹 자율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그룹 자율연수는 전체 6조로 편성해 교육정책과 교양 등 그룹별 자율적 토론으로 결정,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직원 간 소통공간 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조직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자율연수로 조별로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탐방을 통해 구성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창의적인 조직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했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